

“유튜브도 혁신교육 될 수 있어요”

**임실초 강경욱 교사, 아이들과 소통에
영화·유튜브 선택... 각종 공모 두각**

“영화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임실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영화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성격이 바뀐 것은 물론 학교생활에서 재미를 느끼고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그 중심에 6학년 1반 담임을 맡고 있는 강경욱 교사가 있다. 강 교사는 3년 전부터 영화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때문에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는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다.
강 교사는 “처음에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수업영상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았다. 재미가 빠진 것이었다”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까 고민하다가 영화를 만들어보기로 하고, 영화부를 모집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영상편집기술만 가지고 있던 강 교사는 이후 1년 반 동안 기획, 촬영, 시나리오, 배경음악 등 영화 전반에 대해 공부했다.
첫 결실은 지난해 임실군에서 주최한 학교폭력예방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성무의 하루’라는 제목의 UCC는 전학생 성무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어 지난 2월 신라면 20초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또 가장 최근에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날 기념 공모전에서 영화 변호인을 패러디한 ‘학생인권재판’으로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만든 학교폭력예방 영상은 교실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다.
강 교사는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의 나쁜 점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이후 달라졌다”면서 “영상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쁜 행동을 그만둔 것이다”고 설명했다.
영화동아리 활동은 아이들의 성격도 크게 바뀌



임실초 영화동아리 강경욱 교사와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슬아, 최지영, 정기영, 김가은, 최무성, 홍기란, 이주아, 강경욱 교사.

**“3년째 영화동아리 운영 중이다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같은 생각을 가진 교사들이
연구활동 통해 발전 구심점 필요”**

놓았다. 소심하던 아이는 적극적으로, 우울하던 아이는 밝고 긍정적으로 변했다.
남자주인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최무성군은 영화동아리 활동 전에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지금은 영화를 통한 다양한 경험과 특히 지난해 국제청 30초 영화제 시상식에서 배우 황정민씨를 만난 이후 영화배우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수업방식이라는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화동아리지만 아직까지 지원은 부족하기만 하다.

강 교사는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슷한 활동을 하는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꼽았다.
그는 “3년째 영화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교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연구활동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교사는 “전북교육이 혁신교육을 표방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유튜브 활용도 혁신교육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전북이 이 분야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강경의 영화교실’에서는 화제의 뮤직비디오 ‘노래방에서’를 비롯해 그동안 강 교사와 아이들이 만든 다양한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하남 전영한 회장·세브란스병원 인요한 교수, 명예박사 학위

전주대 개교 55주년 기념식에서

전주대학교 개교 55주년을 기념해 최근 하남(주) 전영한 회장,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인요한 교수의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홍정길 이사장, 전주대 이호인 총장, 전주대 임정영 총동문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영한 회장과 인요한 교수에게 각각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와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명예박사 수여자로 전주대의 건학이념이기도 한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일평생 실천해 온 전영한 회장과 인요한 교수가 선정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하남(주) 전영한 회장은 자수성가한 기업가로 이웃

과 사회에 봉사하고 기부하는 삶을 살았다. 199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를 설립하여 국내외에 무궁화 묘목을 무상으로 보급해오고 있으며, 100여원을 투자하여 요양원을 설립한 뒤 충청남도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도 했다.
또한, 500여원을 기탁해 미얀마 현지에서 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개발도상국가의 의료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가족들도 전 회장의 이웃 사랑과 나눔의 뜻을 받아 상속포기각서에 서명하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다.
한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인요한 교수는 급발에 푸른 눈의 전라도 사나이로 의료봉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사랑을 실천해왔다. 인 교수의 집안은 1886년부터 5대째 대한민국에 살면서 선교, 봉사활동,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인 교수는 그의 아버지가 고향 순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한국의 음급료체계 부재를 안타깝게 여겨 아버지 장례식의 조의금을 모아 한국 국영 구급차를 개발하고, 응급구조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인 교수의 형인 인세반 회장에 의해 설립된 유진벨 재단과 순천 기독결핵재활원에 참여하여 결핵과 각종 질병에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전영한 회장과 인요한 교수의 그 동안의 업적과 나눔 정신이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귀감과 모범이 된다”라며, “두 분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박용우 재향군인회 장수지회장 취임

재향군인회 장수군지회는 최근 장수단위농협 회의실에서 제29대 박용우(61)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재향군인회 전북도지부 주재진 회장, 장영수 군수, 박용근도의원, 김종문 군의장, 장수군 보훈·사회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용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수군 재향군인회 발전을 위해 회원 친목도모와 권익신장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안보단체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앞장서고 있다.



박용우 재향군인회 장수지회장 취임식 모습. /장수=고관호 기자

군산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계획단 모집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할 시민계획단을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목표연도 2040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영역에 착수해 2020년말 계획수립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산시는 장기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를 위해 시는 오는 24일까지 60명의 시민계획단을 모집한다.
시민계획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과 지역 내 사업장 근무자와 대학생도 참여 가능하다.
거주지, 연령, 성별, 직업을 고려해 총 60명이 선정될 예정이며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참여해 도시 미래상과 미래상 실현을 위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의 양식을 작성후 도시계획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시계획과(☎454-350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제4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월명체육관에서 8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효행사, 장한아버이, 유공자 등 22명이 각종 표창장과 상패를 수여했으며, 군산시 소재 노인관련기관·단체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어버이날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와 이웃에 모범이 되는 효행사, 장한 아버지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고, 표창을 통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식후행사로 진행된 어르신 큰잔치는 가수 김양(우지마리), 배진아(꽃피아가씨), 심풍(부탁중하차)씨가 출연해 흥겨운 분위기를 진행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젊은이에게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에게 적극적인 사회 활동 및 교류의 장이 되길 바라며 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농촌어린이 한마당, 합일초등학교 운동장서 개최

어린이날을 맞아 ‘익산 농촌어린이 한마당 행사’가 지난 4일 합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졌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익산농촌교육연구회가 주최하고 익산시가 지원하는 행사로 북부권 지역 농촌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 등에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익산농촌교육연구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들과 지역단체들이 모여 준비했으며 30여 가지의 체험, 놀이, 먹거리 마당으로 나뉘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드론 축구, 출추는 로보, 과학 건축, 나무 공작소, 가상현실 VR체험 등이 추가돼 지난해에 비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열렸다.
정현을 시장은 “농촌 어린이 한마당 행사가 북부권 어린이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호원대, 군산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 '생명존중 교육'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학생상담센터에서 최근 HK-예방단(Howon-Keeper)을 대상으로 군산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회에 걸쳐 실시된 ‘HK-예방단(Howon-Keeper) 생명존중 교육’은 군산정신건강증진센터 노은진 강사를 초청해 ‘생명 배달’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HK-예방단은 학생상담센터에서 양성한 포대 상담원으로, 지난 4월26일 1차교육을 통해 자살 및 생명존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살징후를 배웠다.
이번 2차교육에서는 자살징후에 대한 대처법을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명경시 풍조의 방지를 위한 중요한 인식전환의 기회를 가졌다.
이미영 학생상담센터장(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돕는다는 취지의 HK-예방단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재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하여 HK-예방단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전파를 위해 HK-예방단의 지속적인 양성과 마음건강지킴이 활동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무진장소방서, 실천면 실종자 가족 신고 수색작업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최근 무주군 실천면 대불리에서 김 포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소방서는 신고자로부터 김 포씨가 13시에 무주군 실천면 대불리 소재 불대마을 야산으로 고사리를 채취하기 위해 올라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무진장소방서는 소방·경찰·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합동 수색 활동을 펼쳤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합동 수색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과 유관기관 등 176명이 동원되었으며, 중앙구조본부 인명구조조력과 드론을 이용한 전문 장비로 활용하여 수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항공수색을 병행 일체적 수색을 위해, 헬기를 통한 실종자의 수색범위를 넓혀 지속적으로 수색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경찰, 포돌이·포순이 포토존 설치

남원경찰서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으로 친근한 경찰 이미지 제고와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 탈피를 위해 서 현관에 포돌이, 포순이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포토존은 경찰서를 견학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경찰서를 들리는 민원인들이 자연스럽게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경찰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또한, 이동이 가능하게 제작되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제8회 춘향제’ 홍보부스에 비치해 관광객과 시민 모두 자유롭게 기념사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기능별 행사 시 내·외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최홍범 서장은 “딱딱하고 경직된 경찰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남원경찰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서(총경 박정환)는 농번기, 행락철 시기 농기계 운행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농기계 대상으로 경광등 부착하며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와 협업하여 태양광 경광등을 제작하여 관내 농기계에 부착하면서 안전운행을 담당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을 노회관 등을 방문하여 새벽시간대나 늦은 저녁시간대 농기계 운행 자제, 도로가에 방치 안하기 등 교통안전수칙을 교육하여 농기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정환 경찰서장은 “농기계,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률이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더 높은 만큼 농기계의 야간운행을 자제하고 특히 보행자들은 밝은 옷 착용과 일몰전에 귀가할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